

‘생산 감소·판매 부진’ 韓 자동차 산업 신차로 격파

상·하반기 완전변경 모델 등 국산차 20여종 출시 계획

현대 제네시스 럭셔리 SUV GV80, 가장 큰 기대 받아

현대·기아차 ‘한 지붕’ 대결 눈길…르노삼성·한국GM 존재감 회복

유일한 해법은 소비자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 잡는 ‘신차’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 감소 및 판매 부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를 타개할 전략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 시켜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생산 400만대, 국내외 판매 800만대’ 붕괴에 빠졌다. 업계 ‘맏형’ 현대·기아차마저 올해 판매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이다. 5년 연속 판매 목표 달성을 실패했는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역성장 기조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새해 첫차부터 럭셔리 GV80…수입 SUV 덤벼라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차는 이달 출시하는 현대차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최상위 SUV GV80이

다. GV80은 최근 공개된 내·외관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며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외관에서는 대형 SUV 특유의 웅장함과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다. 3열 좌석을 갖추고도 마치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도 차별화된 요소다.

내장 디자인 역시 첨단 사양을 많이 적용하면서도 복잡한 조작 버튼 대신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으로 구현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항속 기술, 정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진·출입로 자동 감속 기술 등을 국내 양산차에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 ‘한지붕 가족’ 현대·기아차, 신차로 올해도 격돌

지난해 노사갈등에 따른 생산절벽 및 판매 부진에 빠졌던 르노삼

그랜저(부분변경), K7(부분변경), K5(완전변경) 같은 세단 외 소형 SUV 베뉴, 셀토스 출시로 라인업을 강화한 현대·기아차는 올해도 다양한 신차를 출시한다.

준중형 세단 아반떼(완전변경)와 소형 SUV 코나(부분변경)도 각각 상·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는 기아차는 ‘신흥 SUV 강자’답게 다형적 SUV를 선보인다. 특히 준중형 SUV 및 중형 SUV 간판으로 꼽히는 스포티지(하반기)와 쏘렌토(상반기)의 완전변경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어 동급의 투싼, 쏘나타와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 “우리도 있다” 르노삼성, 한국GM ‘신차’로 존재감 회복

지난해 노사갈등에 따른 생산절벽 및 판매 부진에 빠졌던 르노삼



제네시스 GV80

성, 한국지엠도 상반기 신차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먼저 르노삼성은 1분기 내 쿠페형 SUV ‘XM’을 출놓을 계획이다. 쿠페형 SUV는 르노삼성이 첫 번째로 출시하는 차종으로,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르노삼성은 이외에도 총 6종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인데 소형 해치백 전기차(ZOE), 소형 SUV QM3(완전변경)도 상반기에 내놓

을 계획이다.

한국지엠도 준중형 SUV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상반기 출시한다. 이 차량은 트랙스와 이쿼녹스 사이에 위치한다. 수입 모델에 판매에 집중하는 한국지엠이 부평공장에서 내수·수출 물량을 전량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올해 내수 시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도 SUV와 고급차, 전동차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77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현대·기아차에 신차가 집중됐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다양한 신차 출시로 국산차 및 수입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뉴스1

올해부터 종량세 시행…캔맥주 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올해부터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주류 가격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세율이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와 병맥주의 경우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맥주와 타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가 바뀐 것은 1968년 이후 52년 만이다. 주세 체계는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를 적용했으나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증대 목적을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종량세가 적용되면서 주류별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캔맥주의 경우 기존 종가세에서 리터당 1758원이던 세금이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

세부담이 줄어들면서 출고가격 인하가 전망된다. 맥주판매업체가 소비자가격을 결정하지만 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격 조정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롯데주류는 최근 클라우

드 캔맥주(500ml)의 가격을 1880원에서 1565원으로 315원(-16.7%) 인하하고, 피즈의 가격도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기를 내렸다. 롯데의 가격 인하가 맥주 업계 전체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캔맥주의 가격인하 조짐이 보인 반면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세부담이 소폭 늘어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병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올랐으며 페트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인상됐다. 세율 인상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맥주업체에서 늘어난 세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전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설 행사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농수특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남도장터’는 전남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다. 한우와 전복, 굴비, 고수 등 총 572개 제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 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와 우체국쇼핑, 위메프, 롯데슈퍼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20여곳에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한다.

1만~2만원대 알뜰 선물세트부터 식품명인 제품, 도자시품질인증 제품 등 8만~9만원 대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출시한다.

제 892회차 당첨결과 (2020년 1월 4일 추첨)

4 9 17 18 26 42 + 36

순위	당첨개인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7	1,282,017,464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8	46,569,011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2,709	1,340,85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34,155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2,155,74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 기한: 지금 가시 일로부터 1년(출발일 경우 미영업일)

광주, 대전보증!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